

미래 청정에너지 인공태양 품은 나주, 후속 조치 본격화

나주시, 예타 대응 전담 체계 구축과 시민 소통 강화로 2026년 연내 통과 총력

전라남도 나주시가 인공태양으로 불리는 핵융합 국책사업 부지 유치 확정 이후 예비타당성조사 대응과 기반 조성, 시민 소통을 아우르는 후속 조치를 본격화하며 미래 에너지 중심도시 도약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2월 10일 나주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한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사업 부지로 최종 선정됐다.

해당 사업은 전 세계적인 에너지 패권 경쟁 속에서 핵융합 상용화 기술을 선점해 미래 에너지원 확보와 국가 에너지 안보 강화를 목표로 추진되는 대형 국책사업으로 약 1조 2천억 원 규모의 국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사업 기간은 2027년부터 2036년까지 10년간이며 핵심기술 연구개발과 실증 기반 인프라 구축으로 구성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부지 유치 공모 요건에 따르면 2028년 상반기까지 지자체가 정치부지를 제공해야 하며 250MVA 전력 입선으로, 왕복 4차선 이상의 진입로 확보 등이 기본 조건으로 제시됐다.

나주시는 이러한 요건을 바탕으로 입지 여건과 안전성, 확장성, 인프라 연계성을 종합 검토해 나주에너지국가산업단지 일부 부지와 인근 부지를 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

해당 부지는 이미 조성이 진행 중인 에너지국가산단의 기반 시설을 활용할 수 있어 신속한 부지 조성이 가능하며 4차선 진입로 조성 계획이 수립돼 접근성 확보에도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또한 인근 왕곡변전소와 산단 배수지 등을 활용해 대규모 전력과 용수 공급이 가능하고 사업 부지 인접 지역에 확장할 수 있는 부지를 보유해 정부 공모 기본 방향인 지속성과 확장성 측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연구시설을 거점으로 나주혁신산단과 나주에너지국가산단 내 관련 기업 유치가 가능해 연구와 산업이 집적된 산업화 기반을 구축하고 핵융합 연구시설과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나주시는 연구시설을 중심으로 핵융합 산학연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사업 부지에



서 10분 거리에 있는 나주혁신도시의 에너지 분야 산학연 인프라를 활용해 한국 전력공사와 전력거래소 등 에너지 공공기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중심으로 공동 협력 기반의 에너지 연구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외 우수 연구 인력 유치와 정착을 지원하고 핵융합 영 사이언티스트 양성, 에너지영재센터 설립, 정주형 복합 생활공간 조성 등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교육과 연구, 정주 환경을 갖춘 에너지 과

학도시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2026년 연내 정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목표로 전담 조직을 구성해 예타 대응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 대상지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와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사업 전 반과 향후 추진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고 추진 과정의 정보를 공개해 지속적인 주민 소통과 의견 수렴을 통해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나주/이명열 기자



함평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로 축산 환경 개선 퇴비생산 효율 향상 및 악취 저감 기대

전남 함평군이 축산분뇨 자원화 기반을 강화하며 친환경 축산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함평군은 농립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한 2026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사업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함평군은 2026년 함평농협 친환경사업단이 운영 중인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에 총사업비 16억 5천만 원을 투입해 개보수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퇴비 교반기 2식 교체 ▲퇴비사 지붕 보강(2,200㎡) ▲악취 및 대기오염 방지시설 보완 설치(1,300CMM) 등 노후 시설을 전면 개선해, 축산농가의 분뇨 처리 부담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영농 여건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시설은 함평읍 장군로 931에 위치한 함평농협 친환경사업단 공동자원화시설로, 현재 관내 21개 축산

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위탁 받아 퇴비로 자원화하고 있다.

그러나 2014년 가동 이후 10년 이상이 경과하면서 시설 노후화로 인한 처리 효율 저하와 운영상의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퇴비 교반기는 장기간 사용에 따른 부품 노후와 잦은 고장으로 가동 중단 사례가 발생해 왔으며, 퇴비사 지붕 부식으로 인한 누수는 퇴비 품질 저하와 안전사고 우려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기존 악취 저감 시설 또한 개편된 환경 기준에 미달해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함평군은 "이번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를 통해 축산분뇨 처리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악취 민원 해소 및 친환경 축산 기반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함평/전광춘 기자

광양시가 시내버스 서비스 품질 향상과 시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시내버스 서비스 시민평가단'을 모집한다.

시민평가단은 성인과 중·고등학생 30명 내외로 구성되며, 2026년 2월부터 12월까지 관내 운수업체인 광양교통이 운영하는 30개 노선을 대상으로 직접 시내버스를 이용하며 평가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주요 평가 내용은 준법 운행 여부, 친

광양시, '시내버스 서비스 시민평가단' 모집

2026년 2월부터 12월까지 시내버스 서비스 평가

절도, 안전성, 노선 운영의 적정성 등 시내버스 서비스 전반이다.

시는 실효성 있는 평가를 위해 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높은 시민을 중심으로 평가단을 선발할 계획이며, 평가단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활동에 따른

실비를 지급할 방침이다. 아울러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모범 운수종사자를 선발해 시상할 예정이다. 또한 시민평가단이 제시한 의견을 토대로 대중교통 서비스의 미흡한 부분을 점검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평가 결과를 운수업체와 공

유해 향후 대중교통 정책 수립과 운영 개선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이 직접 대중교통 서비스를 평가하고 개선 방향을 제안하는 참여형 제도를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교통정책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시민의 눈높이에서 불편 사항을 꼼꼼히 점검해,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양/신선호 기자

진도군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25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023년부터 3년 연속 '청렴도 2등급'을 달성했다.

종합청렴도 평가는 각급 공공기관의 반부패 노력을 촉진하고 청렴 인식과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매년 시행되며, 올해는 전국 70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평가가 이뤄졌다.

진도군, 종합청렴도 평가 3년 연속 '2등급' 달성

청렴으로 증명한 행정... 반부패 실천으로 군민 신뢰 굳건히!

진도군은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과 군민에게 신뢰받는 행정 구현을 목표로 ▲반부패, 청렴도 향상 보고회 ▲청렴 실천 결의대회 ▲공직자 청렴 교육 ▲청렴 서한문 발송 ▲1부서 1청렴 실천

활동을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 운동 ▲부패방지 제도개선 이행 등 다양한 청렴 시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진도군은 청렴체감도와 청렴도 노력도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

를 받으며, '3년 연속 2등급'을 유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청렴은 선언이 아니라 실천이며, 3년 연속 2등급이라는 성과는 군민과 공직자가 함께 쌓아 올린 신뢰의 기록이다"라며,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진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진도/오재명 기자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전라남도가 실시한 22개 시군 식품·공중위생 분야 안전관리 평가에서 7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고 29일 밝혔다.

전라남도는 매년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기초 위생관리 평가지표를 포함한 5개 부문 21개 세부 지표를 평가해 3개 지자체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하고, 우수사

고흥군, 식품 공중위생 평가 7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식품안전관리, 민원처리 등 높은 점수, 공중위생 선제적 대응 입증

례를 공유하고 있다. 고흥군은 식품안전관리 인프라 활용과 민원 처리, 지도·점검 등 모든 평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식품안전관리 분

야에서 우수한 행정 역량을 인정받았다. 또한 고흥군은 식품·약품안전처가 주관한 2025년 식품안전관리 우수기관 평가에서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한 평가

결과, 5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군 관광정책실 관계자는 "식품·공중위생 평가 우수기관 선정은 청정 고흥의 고품질 먹거리가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식업 종사자들과 함께 노력해 온 결과"라고 말했다.

고흥/박도일 기자

장흥군체육회, '2025 체육인 화합 한마당' 성료

장흥군 체육 빛낸 유공자 10명, 3개 경기단체 표창장 수여

장흥군체육회는 26일 장흥군민 회관에서 '2025 장흥군체육인 화합 한마당'을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 체육 분야 부흥의 성과를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고, 체육 발전에 앞장서고 있는 장흥군체육회의 한 해 노력을 되돌아보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정성인 장흥군체육회장을 비롯하여 지역의 기관·단체장, 회원종목단 체장, 선수 등 총 300여 명이 참석했다.

장흥군 체육을 빛낸 유공자 10명과 3개 경기단체에게는 군수, 국회의원, 의장, 체육회장의 표창장이 수여되었다.

또한 우수지도자 12명과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 16명, 모범선수 16명에게 장학금이 전달되어 노력의 결실을 축하받는 시간이 마련되었다.

현장에서는 장흥군체육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해 김영래 삼성엘리베이터 대표이사 쌀 100가마, 김재명 강동식품 대표 300만원, JS빌딩 이미징 사장 1천만원, 장흥산업 김민숙 대표 1천만원 기부금 후원도 이어졌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체육이 가진 가치를 바탕으로 지역 사회를 더욱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장흥군 체육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이 작품은 국민 김라온님이 제안한 공익광고입니다. - 2024 정부광고 크리에이티브 페스티벌 수상작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우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

독서로 찾는 강력하고 건강한 도파민

독서는 우리의 문해력과 사고력을 키워주는 큰 자산입니다. 책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진정한 '나'를 만듭니다. 소셜 미디어와 스마트폰에서 얻은 일시적인 자극 대신, 독서라는 건강하고 긍정적인 자극을 선택해 보세요.

지금 읽고 있는 것보다, 최대한 담백하게 사는 것. 색감처럼. 타성에 젖지 않을 것. 내가 창조하는 삶을 살아갈 것. 미련을 남기지 않는 것. 지금처럼 버티다 보면 이 순간이. 한들수목 나 자신을 사랑할 것. 늘그렇듯, 늘 주의를 기울일 것. 알리고 싶은 메시지를 포기하지 않고 잘 버티고 있다는 것. 내가 나를 알아봐 줄 것. 코자 볼 수 있는 것이니까. 나의 가치를 내가 찾을 것. 특별함을 당신이 생각하는 것 보다 누구보다. 너의 우주와 예쁘다고 다 끌리는 게 아니고. 소중함을 좋은 생각으로 나를 채울 것. 마음먹기에 그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이었는지 느껴진다. 우리는 몇 장짜리 책이까. 자칫 무의미해 보이는 꿈같은 것. 저서. 기쁜 스레 생김. 정말 멋진 나를 있는 건데. 말이다. 평범함의 더 크게 웃을 것. 포근한 이 둘. 정말이다. 공전으로 맞물려 일상을. 우어도 보는 것. 마음이 편해진다. 누가 뭐라고 해도 당당하게. 몇 장이나 될까. 색감처럼. 잠시. 을 리우고. 현재의 미래와 걸러낼 수 없는 것이긴 해. 풍환적인 훨씬 강하다는 것. 평범한 것은. 고유의 색을 가능 하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미래의 현재가. 극난 사람. 내가 정말 팬잖은 사람이 되면. 기회는 위기 속에서 찾아온다는 건. 알 것. 엔 다 잘될 테니까. 내가. 그 자체만으로도. 좋은 거라면. 언제나 우연.